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시간 속으로

Part. 1

글. 이원영 (주)IB 엔지니어링 상무, 정보통신기술사 / 前 MBC TV송출부

Santiago



2025년 2월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시간 속의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2부에 걸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1부에서는 여행 전반에 대한 저의 감정과 여행 경험을 이야기형식으로 소개해 드리며, 2부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여러 가지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다양한 상황별 설명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롤로그

모든 직장인은 퇴직 후 또는 휴가 중 홀로 조직과 가족부양이라는 몇몇 부담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정한 자신만의 시간 갖기를 꿈꾸기도 한다. 통상 버킷리스트라는 곳에 담아서 말이다.

사전적 의미의 ‘버킷리스트(Bucket List)’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 리스트로, 우리말로 소망 목록이라고도 한다. 이 버킷리스트에, 난 퇴직 후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를 넣어두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내가 이곳을 버킷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 순례라는 단어가 주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에서 주는 정신적 수행의 의무감과 무게감으로 그 길을 걸으면 나에게 무언가 영감을 주거나, 스스로 그 영감에 도달할 것만 같은 희망을 주는 의미로 받아드린 듯하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 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리스트를 선정했고 그 출발을 퇴직 시점으로 잡고 싶었다. 그러나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업무 적응과 프로젝트 완료라는 사명감으로 버킷리스트 실행은 밀리게 되고 3년 후 2월에 스페인에 발을 딛게 되었다.

왜 그리 가고 싶었는지, 왜 그렇게 걷고 싶었는지, 왜 둘이



아닌 혼자서 그 기나긴 800km나 되는 길을 걷겠다고 했는지 등 많은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이제 할 수 있을 듯하다.

출발

산티아고 순례길을 버킷리스트에 넣어둔 후 나의 유튜브 재생 목록 및 즐겨찾기, 좋아요 등 모든 콘텐츠는 순례길에 관한 내용으로 영어, 한국어 등 가리지 않고 그들의 발자취와 이야기에 빠져 마치 내가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체력적 준비로 매일매일 수영 및 동네 뒷산을 오르고 시즌별 휴가 기간을 통해 제주 올레길을 3일에서 5일 정도 연속으로 걸어보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판초우의에 동일한 무게(약 12kg) 배낭을 메고 동네 둘레길을 걷기도 하며 체력을 보강하는 훈련을 대신하였다.

나의 휴식 기간이 동계 시즌 3개월 정도가 될듯해서 2월 출발, 3월 도착으로 일정을 잡게 되었고 배낭에 넣어갈 준비 물로는 간단한 ‘의, 식, 주’의 큰 카테고리 하나씩 줄여가며 정리했다. 의류의 최소화, 침구의 경량화, 신발의 편의성 등을 고려, 전체 배낭 무게 포함 약 12kg으로 맞추었지만, 이동 시는 간식 및 식수 등 준비로 약 2kg이 늘어서 만나는 순례자마다 나의 배낭 무게를 걱정하는 인사를 듣게 되었다. (사실 순례길 공식 배낭 무게는 자신 몸무게의 10%로 나의 경우는 7kg을 매고 가야 정상인 것이었다)

순례 첫걸음

2025년 2월 4일 인천발 프랑스 도착 비행기 탑승으로 나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보통 프랑스 드골공항 도착 시간대에 따라 파리에서 1박을 하기도 하고 바로 생장(생장 피에르 포트)까지 이동하기도 하는데 나의 경우는 하루를 벌 생각으



산티아고 표지석에서



카미노 친구들

로 후자인 생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코스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 코스를 이용하려면 오전에 드골공항에 도착, 바로 생장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당일 도착이 거의 오후 6시 이후에 도착하게 되므로 순례자 여권 등록, 알베르게 체크인, 저녁 식사 해결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사실 순례길의 명칭은 프랑스 길이라 하지만 프랑스 지역은 이곳 생장 한 곳으로 이곳에서 순례자 여권(크리덴셜)을 발급받고 순례 시작도장(스탬프, 세요)을 찍게 되면 다음 이동지는 스페인 나바라주로 이동하기에 전체 800km 상 프랑스 지역은 약 20km 내외로 생각하면 된다. 전체 도상 거리상 총 4개의 자치주(나바라, 리오하, 레온, 갈리시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각 주의 순례길 특징과 다양한 음식문화 등을 경험하게 되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생장의 인상은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가 도착한 시간은 늦은 오후 6시경으로 한적한 역에 내려 각종 안내판을 보고 순례자 사무실로 이동해야 했다. 다른 순례자들의 동선을 참고하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았던 이미지 등을 기억하며 마을의 오래된 골목길을 접어 들어 소박한 사무실의 초인종 소리는 나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다.

순례길 위의 일상

전체 거리를 걷는 동안 하루 평균 25km 정도를 예상하고, 800km를 200km씩 사 등분 하고, 다시 25km씩 팔 등분 하면 총 32일 정도로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첫날 밤을 생장의 55번 알베르게에서 보내고 다음 날 론세스바예스로의 출발을 시작으로 Day 1의 일정은 시작되었다. 통상 생장에서 론세스바예스까지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루트인 피에르 산맥을 넘어가는 오리손 루트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겨울 시즌에는 이곳 루트가 눈 등 기상악화 대비로 잠정 폐쇄되어 우회 루트인 발카로스라는 지역으로 우회해야 했다. 이 발카로스 루트 역시 우리나라 각종 둘레길의 종합 세트처럼 종주길, 둘레길, 올레길, 계곡산행길 등 다양한 코스를 조합해 놓은 듯하며 이곳을 통과해 스페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험난하고 지루한 여정이었다. 실제 도상거리로는 27km라고는 하지만 고도 상승 및 계곡 길 통과 등을 고려한다면 35km 정도 되는 긴 여정이었다.

이렇게 첫날을 보내고 나면 유튜브나 책자에서 많이 보게 되는 산티아고 거리 표지석을 만나게 되며 남은 여정이 755km라는 표지석에서 기념 촬영을 하면 Day 2의 일정이 시작된다.

순례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의 동행을 통해 서로의 순례 이유와 그들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기도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다. 출발일 생장에서 만난 헝가리 친구 '라벤따'라는 친구는 처음 열차에서의 인상이 지워지지 않고 부르고스까지 동행을 하다 나의 발바닥 물집으로 하루 휴식하는 동안 그와는 다시는 못 만나게 되었지만, 그와의 시간 속에서 부인을 잃은 애절한 감정들을 느끼며 동행했고 스페인 친구들과의 만남, 독일, 이탈리아, 베트남, 중국, 네덜란드 등 각국의 순례자를 길에서 만나게 되면 보통 10분 정도 이야기하며 걷게 되고 각자의 걸음 속도에 맞춰 헤어지고 다시 숙소에서 만나게 된다. 저녁도 같이해 먹고 외식도 함께하고 다음 날 일정도 공유하는 등 쓸쓸한 재미가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가끔 한국 젊은 친구들은 만나기도 했는데 그들은 워낙 걸음 속도가 빨라 숙소에서 한번 마주치면 그 이후 그들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거나 다른 외국 순례자들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순례길 전체 구간에는 어림잡아 200여 개의 작은 마을과 4개의 큰 도시를 만나게 된다. 큰 도시는 대표적으로 팜플로나, 로그로노, 부르고스, 레온이 있고 이곳을 지나기 위해 거치는 작은 마을들이 200여 개가 된다. 순례길은 관광 상품화되어 각 작은 마을에서는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눈에 띄었던 벽화 1

십여 개 정도의 알베르게를 운영한다. 그러나 동계 시즌에는 공립 알베르게 위주로 오픈하고 사립 알베르게의 경우는 시즌 내(4~11월)만 오픈, 동계 시즌에는 휴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알베르게 검색이 필수적이다. 다만 오픈한 알베르게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덕분에 침대 확보 걱정은 덜 하다.

눈에 띄었던 벽화 2



알베르게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공식 숙박업소로 대부분 이층 침대를 4개에서 6개 정도 구성하고 남녀 약 8~12명이 동시에 취침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놓거나 큰 병원 설비공간에 대량의 침대를 구성하기도 하고 최근 신설 알베르게는 1인 침대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알베르게 시설 중 아쉬운 것은 이런 규모의 시설도 샤워장 수가 부족하여 10명당 1개의 샤워부스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동계 시즌은 그렇지 않아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았다.

순례길에서의 음식은 개인 취향별로 먹을 수가 있는데, 우선 알베르게의 취사 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느 알베르게는 취사도구가 갖춰진 곳이 있고 어느 곳에서는 아예 취사도구는 없이 전자레인지만 갖춰진 곳들이 있어 사전 알베르게 정보 검색 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곳의 취사도구 여부를 확인 후 아침 및 저녁 식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가 걷게 된 겨울 시즌인 2월, 3월의 날씨는 한국보다는 춥지 않지만 통상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 정도였고 낮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2도 정도였던 것 같다. 또한 이동 전날 날씨를 검색해 다음 날 여정을 준비, 비옷 등을 챙겨두기도 하는데 비옷의 경우 필자는 2개를 준비해 날씨에 따라 선택해 입기도 하였다. 아마 3일쯤 되던 날 수비리(Zubiri) 마을을 목적지로 두고 출발하는데 하루 종일 억수 같은 비가 내려 판초 우의를 입고도 속옷이 다 젖게 되었고 그날 알



철의 십자가

베르게에 난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감기에 걸려 고생했을 지도 모른다. 그 이후론 그렇게 많은 비를 맞아보지 않았고 아마도 32일째 콤포스텔라 광장 도착일에 보슬비로 광장에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못 한 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용서의 언덕



폼포스텔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내 몸과 내 마음

이 여행이 나의 버킷리스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는 해도 사실 총 800km의 거리를 혼자 배낭을 메고 걷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다. 사실 거리 완주에 대한 목표 달성보다는 그 걸음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성찰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는 목적을 가졌기에 걸을 때는 풍경에 취해, 날씨가 나쁠 때는 환경 적응에 취해, 숙소 도착해서는 피곤함에 취해, 출발 전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30일이 훌쩍 지나가 버린 듯했다.

33일의 기간과 800km의 거리를 일정한 속도와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그동안 훈련 및 운동을 통해 준비했다라도 내 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출발 6일째 되는 날 밤, 자다 화장실을 가려는데 무릎이 접히지

않아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무릎 스트레칭으로 남은 잠을 못 자기도 했고 어느 날은 발바닥에 손바닥만 한 물집으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런 몸의 변화는 20일을 거치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정상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명상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의 변화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순례길은 통상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로 보통 자연과 어우러지거나 메세타 평원, 일반 차량 길, 마을 사이길, 강변길, 냇가길, 능선길 등 조용하거나 각종 잡음이 있는 도로에서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와 마음의 소리가 어울린 새로운 감정의 시간을 걷는 동안 내내 느낄 수 있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완주증, 순례증, 여권



지인들과 추억을 공유했던 포토북



콤포스텔라 도착

순례의 끝,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도착

순례길 마지막 날은 산티아고 대성당 콤포스텔라 도착 -10km 지점에 숙소를 정하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 오전 10시 전에 도착, 광장에서의 작은 퍼포먼스와 완주증 수여 등의 일련의 절차를 밟고 12시 정식 미사에 참석할 때까지는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다가 미사 이후 난 여기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토록 힘들고 즐겁게 지낸 모든 순간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돌아와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작은 마음의 기부를

완주증에 적힌 778km를 1km당 1만 원의 기부 비용으로 환산해 전달했다)

33일의 여정을 통해 걷는 내내 나와 의 시간을 가진 것은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이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오후 2시에서 3시까지는 혼자 아무도 없는 순례길을 걷게 되고 걷는 동안 주변 풍경들과 함께 나의 걸어온 길, 지금의 나와 가족, 친구 등 관계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의 결과는 메모 또는 녹음으로 기록을 남기고 가족관계의 생각 등은 직접 아들, 며느리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편지라는 지면을 통해 전달하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다.

다시 일상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나의 일상은 그 당시 느꼈던 영감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발바닥의 고통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한 주가 지난 후 친구의 사망 소식은 내가 순례길에 있을 때 그 친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하고 그 친구의 건강 회복에 대한 작은 소망이 현실화하지 못함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다섯 가지의 상징물들이 있다. 까미노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노란색 화살표', 인생의 무게 또는 이동 시 짐의 무게 등을 지고 다닌 '배낭', 걸으면서 물집, 상처, 염좌 등 발생하는 고통을 위한 '상비약', 지속적인 걸음을 위한 도우미 '지팡이', 순례를 마치고 얻게 되는 '가리비' 등의 5가지 상징물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상징물이 비록 순례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면서 늘 추구하는 목표를 향한 지침과 삶의 무게 등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경험을 늘 간직하고 회상하기 위해 돌아오자마자 포토북을 제작해 몇몇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쨌든 난 나의 버킷리스트 목록에 밀줄을 그을 기회를 가졌다. 그 밀줄이 내 가족, 나의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음 버킷 리스트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다음 호 2부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궁금증을 상황별로 구성한 Q&A로 여러분의 여행 길잡이로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